

# 파키스탄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4.

|              |    |
|--------------|----|
| I. 일반개황      | 1  |
| II. 경제동향     | 2  |
| III. 정치·사회동향 | 9  |
| IV. 국제신인도    | 13 |
| V. 종합의견      | 16 |

## I. 일반개황

|      |                      |           |                     |
|------|----------------------|-----------|---------------------|
| 면적   | 796천 km <sup>2</sup> | G D P     | 2,145억 달러 (2012년도)  |
| 인구   | 1억 8천만 명 (2012년도)    | 1 인 당 GDP | 1,192 달러 (2012년도)   |
| 정치체제 | 연방의회제                | 통화단위      | Pakistani Rupee(PR) |
| 대외정책 | 비동맹중립                | 환율(달러당)   | 93.40               |

- 파키스탄은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동쪽으로 인도, 서쪽으로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 북쪽으로 중국, 남쪽으로 아라비아 해와 인접하고 있음.
- 파키스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주로 힌두교)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이슬람교도가 주로 분포하던 동벵갈(후에 동 파키스탄)과 서 파키스탄이 연합하여 인도로부터 분리 독립하면서 수립됨. 이후 지리적으로외에 불만을 느낀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국명을 변경하고 파키스탄 연방을 탈퇴하면서 파키스탄은 현재의 영토로 남게 됨.
- 파키스탄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구리, 철광석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소비시장이 크고 노동력도 풍부해(인구 기준 세계 6위) 성장 잠재력이 높음. 그러나 인도와의 영토분쟁, 이슬람 종파간 내분, 접경국 아프가니스탄에서 유입된 탈레반 무장세력과의 갈등으로 정정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 홍수피해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으로 2012년 경제성장률이 4.2% 기록

- 2010/11년에는 최악의 홍수로 GDP의 0.5%에 해당하는 약 100억 달러의 손실 발생하면서 경제성장률이 3.0%로 감소
- 이후 홍수 피해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긴급 지원(세계은행 9억 달러, ADB 20억 달러, 미국 1억 5,000만 달러, 유럽연합 1억 2,900만 달러, 한국 220만 달러 등)으로 2011/12 회계 년도에는 GDP가 4.2% 성장하여 20조 6,540억 루피(2,145억 달러) 기록

\* 1인당 GDP : 1,003 달러('10) → 1,184달러('11) → 1,192 달러 ('12)  
 GDP 규모 : 1,742억 달러('10) → 2,092억 달러('11) → 2,145억 달러 ('12)

- 2012/13 회계 년도에는 해외투자 감소가 지속되는 한편, 물가상승 지속, 실업률 증가로 GDP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률이 3.5%로 하락할 전망

- 고정자산투자의 GDP 비중이 2007년 20.5%에서 2012년 10.9%까지 감소함. 이는 대외경제 침체로 개도국 투자가 감소한 것 외에도 IMF의 차관 지원 중지(11.9), 폭탄테러 등으로 인한 투자환경 악화, 고금리(2013년 2월 말 9.5%) 지속에 따른 차입여력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고정자산투자증가율(%): -5.6 ('11) → -10.2 ('12) → -2.0 ('13)

\* 민간소비증가율(%): 3.7('11) → 11.6('12) → 4.4 ('13)

#### □ 홍수에 따른 농작물 피해로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7% 기록

- 파키스탄은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식료품 가격 변동, 정부의 확대재정정책과 이를 충당하기 위한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2008년 물가상승률이 19.3%까지 상승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두 자리 수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

- 2010/11 회계년도에는 특히 홍수피해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11.9%의 소비자물가상승률 기록하였으며, 2011/12 회계년도에는 식료품 가격이 다소 안정되면서 상승률이 9.7%로 하락
- 식료품 가격이 안정되고 있지만 막대한 재정적자, 파키스탄 루피화 약세 지속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상존하고 있어 2012/13 회계 년도에도 8.6%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전망

□ **세수기반 취약으로 재정적자가 2012년 GDP 대비 6.6% 기록**

- 파키스탄은 취약한 세수기반과 비효율적인 세원관리로 세수가 모자란 상황에서 인도와의 분쟁지속 및 국내 사회불안에 따른 국방비 지출(세수의 25%), 대규모 대외채무에 따른 원리금 상환(35.4%), 전기세 보조금(19.6%) 등의 지출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유지
- 2008년 12월 IMF 대기성 차관 도입 조건으로 긴축재정을 시행하면서 2008/09년 재정적자가 5.3%로 감소함. 그러나 전기세 보조금 재지급, 홍수 피해 복구 등으로 정부 지출이 다시 확대되면서 2009/10 회계년도 재정적자가 GDP의 6.3%를 기록하였으며, 2010/11 회계년도에도 GDP의 6.6%로 확대
- 2011/12년 세수확보를 위한 일반판매세 도입이 연기되는 한편, 주요한 정부재원인 미국의 연합국지원기금(CSF)이 감소함에 따라 재정적자가 IMF의 목표치(4%)를 훌쩍 뛰어넘어 전년과 동일한 6.6% 기록

\* 연합국지원기금(CSF) :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한 동맹국에 제공하는 지원기금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sup>e</sup> |
|----------|------|------|------|------|-------------------|
| 경제성장률    | 1.6  | 3.6  | 3.5  | 3.0  | 4.2               |
| 재정수지/GDP | -7.6 | -5.3 | -6.3 | -6.6 | -6.6              |
| 소비자물가상승률 | 19.3 | 9.6  | 12.9 | 11.9 | 9.7               |

자료: IMF, EIU.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농업 및 섬유부문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특히 자연재해에 취약

-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농업이 GDP의 약 20%를 차지하고 노동인구의 40%가 농업에 종사하는 등 여전히 파키스탄의 가장 중요한 산업임.

\* 주요농산물생산(세계순위) : 면화(4위), 우유(3위), 밀(6위), 사탕수수(6위), 쌀(12위)

- 파키스탄의 제조업은 GDP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과 풍부한 면화를 바탕으로 한 섬유산업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파키스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면화는 페스트와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는 물론 가뭄과 홍수에 매우 취약한 작물로, 산업생산량의 변동성이 매우 심한 편임. 2010년 8월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주요 곡창지대이자 면화 생산지인 펀잡 주를 비롯한 국토의 20%가 침수되면서 면화 수출 감소
- 파키스탄은 중국, 인도, 미국에 이은 세계 4위의 면화생산국이나 섬유 생산을 위한 초과수요로 일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면화공급을 위한 섬유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현재 1,300만 베일 수준에서 2015년 2,000만 베일로 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취약한 세수기반이 과도한 외채의 원인

- 파키스탄의 일반 판매세 제도(General Sales Tax)는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제도이지만, 부가가치 창출 시마다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완성재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마저도 다양한 품목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하면서 파키스탄 과세 기반이 크게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옴.

- 현재 파키스탄은 전체 경제활동(GDP) 중 10%만이 세금 부과대상이며, 소득세를 전 국민의 1%만 부담하는 등 세수기반이 매우 취약
  - 섬유, 시멘트, 의약품 등 120여개 분야에 대해 면세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었으며, 세율 또한 일정하지 않아 16~25%로 다양하게 부과
- 이에 정부는 15% 단일세율 적용,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와 같이 매거래 단계에서 판매세 징수, 사업자 등록 의무화, 면세범위 대폭 축소, 서비스부문 과세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일반 판매세(New General Sales Tax) 실시를 추진하였으나, 기 진출 외국인 기업과 국민들은 물론 야당의 반발로 시행이 계속해서 지연

#### □ 열악한 인프라는 산업발전의 걸림돌

- 파키스탄의 인구는 2012년 1억 8,000만 명으로 인프라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취약한 세수기반 및 높은 금리에 따른 투자감소 등으로 인프라 투자가 충분히 실천되지 못하고 있음. 게다가 2010년 홍수로 2,0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도로, 가옥 등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의 대부분이 파괴됨.

#### 나. 성장 잠재력

##### □ 풍부한 저임 노동력이 경장성장 기여 전망

- 15세부터 65세의 인구가 전체의 59%로 저임의 노동력이 풍부하여 섬유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유리함. 또한 도시인구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035년에는 인구의 50%이상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빠른 도시화가 파키스탄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 자원이 풍부하지만, 매장량에 비해 광업의 성장 기여도가 낮아

- 최근 파키스탄의 국토의 75%에 구리, 금, 은 등 금속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남동부 신드라 주 타르 사막에도 1,750억 톤 규모의 석탄광산이 발견되었음.

- 이외 형석, 마그네사이트, 알루미늄 등과 천연가스 매장량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열악한 인프라와 기술부족, 정치 사회적 불안정에 따른 외국인투자 부진으로 탐사 및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2012년 파키스탄의 광물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

## 다. 정책성과

### □ IMF의 요구로 경제개혁 추진하였으나 야당의 반대로 정책성과 미미

- 파키스탄은 2008년 말 승인된 IMF 대기성차관 협정으로 거시경제안정화 조건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정책을 수립함.
- 그러나 전기세 보조금 폐지, 연료비 인상 등에 대한 야당과 국민의 반발로 세원 확보가 지연되고 있으며, 재정수지 적자규모 축소, 물가안정,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규모 축소 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로 IMF 대기성 차관 집행이 마감된 이후 추가 지원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외국인투자유치에도 실적이 매우 저조

- 파키스탄은 외국인 자본만의 독자투자(100%) 허용, 투자시 사전허가제 철폐, 과실송금 자유화, 투자업종 전면개방, 특별경제구역 법안 발효(2012.9월) 등으로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치안 악화, 정정불안, 인프라미비, 정책일관성 미흡, 후진적인 업무 관행 등으로 투자유치 실적이 매우 저조함. 2008년 약 54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이후 2011년 19억 달러, 2012년 7억 달러로 크게 감소

### □ 높은 물가에도 성장 촉진을 위해 금리를 낮추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대출이 많아 효과는 미지수

- 파키스탄 중앙은행(the State Bank of Pakistan)은 2012년에만 기준금리를 총 250 bp 하향 조정하여 5년만에 한 자리수(9.5%)로 인하하고, 2013년 2월에도 기존 금리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물가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축소 하라는 IMF 권고에 따라 파키스탄 정부가 중앙은행 대신 민간은행으로부터의 차입규모를 크게 늘리고 있어 금리를 낮춘다 하더라도 민간 부분의 투자여력을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3. 대외거래

#### □ 상품수지 적자 증가로 2011/12년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1.7% 기록

-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EU의 수요 감소로 2011/12년 총수출이 전년 대비 5.7% 감소한 241억 달러를 기록함. 반면에 수입은 2010년 홍수 피해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1/12년에는 전년대비 2.8% 증가한 397억 달러를 기록함. 이에 상품수지 적자가 전년대비 24.6% 증가하여 156억 달러로 증가
- 큰 폭으로 증가한 상품수지 적자로 경상수지 적자도 전년대비 68.2% 증가한 3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1.7%로 상승
- 대외수요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IMF 차관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2012/13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2.0%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철수하는 2014년부터는 미국의 원조가 감소하여 서비스수지 적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sup>e</sup> |
|-----------------|---------|---------|---------|---------|-------------------|
| 경 상 수 지         | -15,655 | -3,993  | -1,354  | -2,234  | -3,700            |
| 경 상 수 지 / G D P | -10.8   | -2.6    | -0.8    | -1.1    | -1.7              |
| 상 품 수 지         | -17,022 | -10,270 | -11,448 | -12,639 | -15,600           |
| 수 출             | 21,214  | 18,347  | 21,469  | 26,295  | 24,100            |
| 수 입             | 38,216  | 28,617  | 32,917  | 38,934  | 39,700            |
| 외 환 보 유 액       | 7,011   | 9,938   | 13,115  | 13,474  | 9,20              |

자료: IMF, EIU



## 4. 외채상환능력

### □ 외환보유액이 월평균 수입액의 2.7배로, 대외지급능력이 미약

- 파키스탄은 2008년 외환 부족에 따른 대외지급불능 위기가 고조되자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외환보유액이 2011년 8월말 165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음. 그러나 이후 대외 부채 상환으로 외환보유고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2년 12월 말 120억 달러, 월평균 수입액의 2.7배로 감소함.
- 수출감소,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등으로 만성적인 외환부족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루피화 약세도 지속되고 있음. 2011년 4월 1달러 당 환율이 84.66 루피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 2013년 1월말 97.56 루피까지 상승하는 등 외환부족에 따른 환율 상승도 지속될 전망

### □ 채무상환 노력으로 총 외채규모는 감소 추세

- 총 외채가 2011년 613억 9,600만 달러에서 2012년 602억 9,000만 달러로 감소하고 2013년에는 588억 2,400만 달러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잇따른 외채상환으로 DSR(총수출 대비 외채원리금 상환액 비중)은 15.6%로 높은 편이지만, 외채의 GDP 대비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파키스탄 당국은 앞으로도 IMF에 대한 외채 상환을 지속하여 2013년 31억 달러, 2014년 20억 달러의 외채를 상환할 예정임.

\* 총외채/총수출 : 198.9%(‘10) → 190.8%(‘11) → 198.6%(‘12)  
 총수출증가율: 25.3% (‘10) → 12.0(‘11) → -5.7(‘12)  
 총외채/GDP : 32.8%(‘10) → 29.4(‘11) → 28.1(‘12)

<표 4> 주요외채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sup>e</sup> |
|-------------|--------|--------|--------|--------|-------------------|
| 총 외 채 잔 액   | 49,337 | 53,280 | 57,181 | 61,396 | 60,290            |
| 총외채잔액 / GDP | 33.9   | 34.2   | 32.8   | 29.4   | 28.1              |
| D S R       | 13.0   | 16.8   | 19.6   | 12.    | 15.6              |

자료: OECD, EIU

### Ⅲ. 정치 · 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 정책실패, 치안악화 등에 따라 자르다리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점차 하락

- 8년간 통치하던 무샤라프(Pervez Musharraf) 대통령의 사임이후 2008년 9월 실시된 파키스탄 대통령 선거에서 파키스탄인민당(PPP) 공동의장인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Asif Ali Zardari)가 대통령으로 당선

\* 자르다리 대통령은 2007년 암살당한 부토(Benazir Bhutto) 전 총리의 남편으로, 총리 암살 후 그녀에 대한 전 국민적 지지와 반 무샤라프 정서를 등에 업고 PPP의 공동의장이 되었으며, 2008년 2월 총선에 이어 대선에서도 승리를 거둬.

- 그러나 현정부가 집권한 2008년 세계금융위기 발발, 전력난 심화, 정치불안, 홍수피해 등으로 성장률이 1.6%까지 하락하고, 이후에도 경제개혁 실패와 홍수 피해에 대한 느장대응으로 국민들의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음. 특히 자르다리 대통령은 부토 전 총리 집권시절에도 뇌물수수 등 각종부패 혐의에 자주 연루되어 11년간 수감생활을 한 바 있어 현 정부의 부정부패도 국민들의 큰 반감을 사고 있음.

##### □ 정파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군부 쿠데타는 없을 것으로 전망

- PPP는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 전 총리가 이끄는 파키스탄 무슬림 리그(PML-N)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며, 주요 연정 상대인 통일민족 운동당(MQM)과도 갈등을 빚어오고 있음.
- PPP와 함께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MQM은 정치적 기반도시인 카라치에서 발생한 정치적 폭력 사태에 대한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큰 불만을 가져왔음.
- 카라치는 MQM과 아와미 민족주의당(ANP)간의 정치적 갈등이 극심한 지역으로, 2010년 8월 MQM 소속 주 의원이 ANP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는

테러에 의해 피격됨. MQM의 진상조사 요구에도 ANP와 MQM을 모두 연정 상대로 구성하고 있는 PPP는 적극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 이후 MQM은 현 정권의 경제 개혁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1년 초에는 정부의 연료비 인상을 반대하며 연정탈퇴를 선언함. 이에 MQM이 연정에서 탈퇴할 경우 전체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PPP 정부가 연료비 인상을 철회하고 MQM이 다시 복귀하는 등 파키스탄의 연립정부 내 갈등이 심각한 상황임.
- o 자르다리 대통령의 지도력 부재와 연정 내 갈등으로 PPP 정권이 지속적인 정치적 안정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불안요인들로 2013년 5월과 9월 각각 예정된 총선 및 대선에서 군부의 영향력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우려
- 그러나 현 군사최고 지도자인 아쉬파프 카야니(Ashfaq Kayani)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해 왔으며, 군부가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군사 쿠데타의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하기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총선이 군부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치뤄질 경우, 파키스탄은 66년 헌정 역사상 최초로 민간인 정부에서 다시 민간인 정부로의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파키스탄의 대통령은 상하원 양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간접선거로 선출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발루치스탄지역 분리주의 운동,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에서의 탈레반 무장투쟁 등의 내분으로 국내 치안 불안한 상태이며, 최근 연달아 폭탄테러가 발생하면서 사회불안 고조
- o 발루치스탄에서는 이 지역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발로크 족(파키스탄 전체로는 파수툰 족이 대다수)이 파키스탄 연방 내 자치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 이 지역은 파키스탄 국토 중에서 가장 많은 천연자원을 생산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보상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중앙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
- 이 지역의 분리독립 요구는 정부의 무관심으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지만 1973년 분리독립 운동이 처음 조직화된 이후 발로크 전투군 5,300명, 파키스탄 군 3,300명이 사망할 정도로 유혈사태가 지속되고 있음.
- o 최근에는 발루치스탄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종교적 소수 세력 시아파 무슬림에 대한 폭탄테러로, 민족적 갈등이 종교적 갈등과 혼재해서 나타나는 양상임.
  - 특히 파키스탄 종교분쟁은 다수인 수니파가 소수인 시아파에 대해 지속적으로 테러를 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실제로 수니파 과격 세력에 의해 발루치스탄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로 2013년 1월과 2월 총 200여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함.
  - o 현재 파키스탄의 안보와 정치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내분은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한 파키스탄 서부 소수종족연방보호지역(FATA) 및 북서국경지방(NWFP)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레반의 무장투쟁임.
    - 이들은 주로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발발 후 피신한 이슬람 무장 세력으로, 2003년부터 지속된 정부군과의 전투로 양쪽에서 36,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함.
    - 특히 이들 이슬람 무장세력은 높은 물가와 불안한 정정, 치안 상황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 여당의 지도력이 부재한 틈을 타 민심을 얻어 정치적 세력화 할 가능성이 있음.
    - 2010년 8월 중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주거지, 구호품, 식수, 식량, 생필품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슬람 무장세력이 탈레반 세력의 핵심거점인 편자부 지역은 물론 산악지역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펼침.

### 3. 국제관계

#### □ 미국과는 전략적 동맹관계로, 양국 관계 부침이 반복

-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 간 경쟁적인 핵실험 단행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짐. 그러나 2001년 9월 미국 테러사건 이후 파키스탄이 전통적 우방관계였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아닌 미국의 대테러 활동을 지원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함.
- 파키스탄은 인도를 견제하고 미국 및 서방국가로부터 경제, 외교, 군사적 지원을 받고자 미국의 탈레반 축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이유로 파키스탄을 지원함.
- 그러나 미국정부는 그 동안 파키스탄이 탈레반 소탕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이유로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파키스탄의 의지와 능력을 의심해 왔음.
- 그러던 중 2011년 오사마 빈 라덴이 파키스탄 영토에서 피살되고, 2013년 3월에는 미국의 반대에도 파키스탄이 이란의 가스 수입을 위한 가스관 공사를 시작하면서 파키스탄과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는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임.

#### □ 테러에 대한 공동조사 합의로 인도와의 경제적 교류가 급증

- 파키스탄은 종교적 갈등을 이유로 한 분리 독립과 이후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싸고 벌어진 3번의 전쟁, 테러, 방글라데시 독립에 대한 인도의 지원 등으로 인도에 대해 강력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2008년 인도 뭄바이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양국간 관계가 급속히 냉각
- 이후 2009년 7월 뭄바이 테러 공동조사 합의와 테러 대응 공조 합의로 양국 간 대화가 재개되면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2010년 4월 부탄에서 개최된 SAAR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비자협정체결, 제품표준 상호인증, 관세협력 강화, 최혜국 부여, 양국 투자 재개 등의 경제적 교류도 확대

- 양국의 노력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간 교역량이 오는 2014년 2012년 20억 달러를 4배 이상 뛰어넘어 9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세계은행).
- 또한 두 나라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양국 간의 교역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AFTA) 소속 국가인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네팔과의 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중국과 전통적인 우호관계 유지

- 인도와 구소련에 대한 파키스탄과 중국의 공통적인 반감으로 양국은 전통적으로 서로를 중요한 우방으로 인식함. 이에 중국은 파키스탄 앞으로 원자력 및 미사일 기술을 전수하는 등 군사관계를 비롯하여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고 있음.
- 2006년 11월 양국간 FTA가 체결되었으며, 현재 고속도로 건설, 금광 및 동광 개발, 전력사업 등 120개 프로젝트에 약 1만 여명의 중국 노동자가 투입되고 중국의 파키스탄 투자가 2012년 1억 2,000만 달러로 전체 투자의 17.3%를 차지
- 2010년 홍수 피해 시에는 중국이 2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의료팀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해복구를 지원했으며, 2010년 11월 자르다리 대통령의 중국 순방에도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과 파키스탄의 전통적 우호관계와 전략적 이해관계를 재확인하는 등 양국간 우호관계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취약한 경제여건과 채무상환 능력으로 리스케줄링 경험 다수

- 파키스탄은 부족한 세수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보전을 위해 외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2012년 총외채잔액이 총수출의 199%에 달함.

- 누적된 외채로 채무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파리클럽으로부터 6차례(1972년, 1974년, 1981년, 1999년, 2001년 1월 및 12월)에 걸쳐 채무재조정을 받은 바 있으며, 당행의 EDCF 또한 파키스탄에 대해 3차례 채무 재조정을 한 바 있음.
- IMF도 2008년 파키스탄의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해 76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나 자금지원의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운 일반판매세 징수가 지연되자 결국 추가 승인한 37억 달러는 집행하지 않고 2011년 9월 대출을 종료
- 2011년 12월 말 OECD 회원국 ECA의 파키스탄에 대한 승인금액은 총 68억 달러(단기 4억 달러, 중장기 64억 달러)임. 이중 연체금액은 22억 달러로, 전체의 32.4%에 달함.

## 2. 국제시장평가

### □ 무디스, 파키스탄의 투자등급을 투자부적격 등급(Caa1)으로 강등 (2012.6)

- 자르다리 대통령 집권 이후 정치불안 고조,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악화와 경제상황 악화, 재정적자 증가 등을 이유로 2009년 4월 OECD가 파키스탄의 국가신용도 등급을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한단계 하향조정하였으며, 이후 2012년 4월까지 7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을 유지
- S&P는 2008년 11월 CCC로 한단계 하향 조정하였으나, IMF 대기성 차관 지원결정으로 2008년 12월 다시 CCC+로 상향조정하였으며, 2009년 8월에는 B-(투자주의 등급)으로 한단계 상향 조정
- 반면에 무디스는 2008년 11월 외환보유고가 급감함에 따라 파키스탄의 등급을 B2에서 B3로 한단계 하향 조정하였으며, 2012년 6월에도 경상수지 적자 및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하고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루피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다시 한 번 신용등급을 Caa1(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한단계 하향 조정

### □ 주요 ECA 지원태도





- 파키스탄의 정치, 경제적 불안요인으로 우리나라의 대파키스탄 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최근 국내기업들이 파키스탄 민자발전사업을 포함하여 에너지, 인프라,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홍수피해 관련하여 정부가 무상원조를 제공하고 기업 및 민간단체들이 구호활동에 동참하는 등 향후 양국간 경제, 외교 관계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의 파키스탄에 대한 투자는 정국과 치안으로 인해 저조한 편이며, 2012년 12월 말 기준 투자누계가 32건, 8,500만 달러를 기록함. (우리나라 전체 투자의 0.03%). 그러나 2006년 이후 투자가 전체 투자누계의 70.9%를 차지하는 등 최근 기업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운수업, 도매업 순

<표 6> 한·파키스탄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 구 분 | 2010    | 2011    | 2012    | 주요 품목               |
|-----|---------|---------|---------|---------------------|
| 수 출 | 780,871 | 818,096 | 847,195 | 철강관, 합성수지, 농약 및 의약품 |
| 수 입 | 339,661 | 736,984 | 774,018 | 석유제품, 면직물, 기호식품     |

자료: 한국무역협회.

## V. 종합 의견

- 파키스탄은 2010/11년 대규모 홍수로 경제 성장률이 3.0%로 위축하였으나, 국제사회의 긴급지원으로 2011/12년에는 4.2% 성장함. 치안 불안 등으로 해외투자 감소가 지속되는 한편, 물가상승 지속, 실업률 증가로 소비도 감소하고 있어 2012/13년에는 다시 3.5%로 경제성장이 둔화할 전망이다.
- 2008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가 홍수로 인한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다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취약한 세수기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국방비 지출, 보조금 지급을 지속하고 있어 재정수지도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음.

- 경제정책 실패, 홍수피해에 대한 능력대응 등으로 자르다리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접경국 아프가니스탄에서 유입되고 있는 탈레반 세력의 자살폭탄테러 등으로 치안이 매우 불안한 상태임.
- 파키스탄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대외 원조 자금에 의존해왔으며, 대외채무 상환능력이 악화되어 6차례에 걸쳐 파리클럽으로부터 채무재조정을 받는 등 취약한 외채상환능력을 보임. 이에 OECD가 파키스탄 국가신용도 등급을 7등급(최하위)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S&P는 B-(투자주의등급), 무디스는 Caa1(투자부적격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이상을 종합하여 파키스탄의 신용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D2로 유지하고자 함. 단, 파키스탄은 대외채무 급증, 외환보유액 급감 등의 사태 발발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서, 향후 거시경제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조사역 강수연(☎02-3779-5716)  
E-mail : sykang@koreaexim.go.kr